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9주일
제33권 37호(다해) 2013.8.11

[묵상]



성모승천대축일 <지상적존재를 천상적존재로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보물은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보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도둑이 훔쳐갈까봐, 좀이 쏘까
늘 걱정해야 하는 보물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데 필요한 것으로
많이 가질수록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점점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울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물은
도둑맞을까, 좀 쏘까 걱정할 필요 없는
하느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울수록 충만해지는 것이며
비울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채우면 불편해지고 비우면 불안해지는 보물,
채우면 충만해지고 비워도 자유로워지는 보물.
보물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라면
참된 보물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의 마음을 채우는 일보다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는 일은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짜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에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에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교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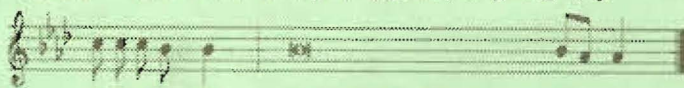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장기한 루시아
특전미사	(생)홍숙자 막달레나, 김현실 아녜스 & 박세본, 이종원 베드로 & 이린다 아녜스 가정
주 일	(연)유정복 베네딕도, 임현기 마르코, 이용식 베드로,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김금점 모니카, 강용길, 고준희 제임스, 주용범 아브라함, 라상옥, 민병익 요한 & 민선언 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 신재건 프란치스코, 김인숙 마리아
낮 미사	(생)백삼위장학금을 주신 의명의 은인, 이윤조 클라라, 최근석, 김상진 이근모 마리오 & 이행자 리드비나, 나성훈 안드레아, 최순옥 스텔라 & 이명순 크리스티나, 임재화 안나 & 박순희 로사, 윤선희 로사 & 신경희 클라라 & 정광미 프란체스카, 하늘의문pr.단원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18,6-9

화답송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행복하여 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 - 성!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
그분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1,1-2.8-19<또는 11,1-2.8-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복 음 루카(Luke) 12,32-48<또는 12,35-40>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234	220	241
봉헌	255	270	268
성체	378	289	309
파견	Power of Your Love	214	187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종교간 대화

▶ 종교간 대화의 가치

117). 교회는 혼합주의와 상대주의를 피하면서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선언 「우리 시대」(Nostre Aetate)에 의하여 제시되고 이후에 교황들의 교도권에 의하여 발전된 노선을 따르면서 선의의 모든 사람들, 특히 인류의 다른 문화 전통들에 속한 이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씀 선포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여깁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인 급속한 세계화는 우리를 다른 문화와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더 밀접한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종교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형제애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기회입니다.

흔히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들에서, 종교가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선의 근본이시고 윤리 생활의 다함없는 원천이시며 모두가 형제라는 깊은 인식의 기반이라고 보는 정신을 길러 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다-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미 깊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노아와 맺으신 계약에서 "구름 사이의 무지개"(창세 9,13.14.16)가 상징하는 단 하나의 큰 포용으로 그들을 결합시키시며, 또한 예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을 온 세상을 포괄하는 한 가족으로 모아들이고자 하십니다(이사 2,2 이하; 42,6; 66,18-21; 예레 4,2; 시편 47[46] 참조). 하느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윤리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사실 많은 위대한 종교 전통들 안에서 나타납니다.

▶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의 대화

118). 교회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는 무슬림도 높이 존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과 연결 지으며, 특히 기도, 자선, 단식으로 하느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슬람교의 전통 안에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과 상징, 주제들이 들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중요한 업적에 뒤이어, 저도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 사이에 여러 해 동안 쌓아 온 신뢰 관계가 진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의 정신으로 지속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이 대화에서 근본적인 가치인 생명의 존중, 남성과 여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그들의 동등한 존엄성 등의 주제를 더 깊이 다룰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계속>

현재에 충실한 깨어있는 삶을 살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루카 12, 35~36)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오늘날과는 달리 통신수단도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아서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며칠씩 하였고 길게는 일주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주인이 올지, 그리고 시간도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종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막상 주인이 돌아왔을 때 모든 종이 자고 있다든지, 그제야 부스스 일어나서 늦게 문을 열어준다든지 하던 주인이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혼인잔치에서의 흥이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종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문을 두드리는 즉시 열어주면, 혼인잔치에서의 여흥이 남아 있던 주인이 얼마나 흡족해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는 주인이 피곤도 잊은 채 “띠를 매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루카 12, 37)라고 합니다. 종들로서는 얼마나 몸 둘 바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띠를 매고 주인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어야 하는데, 주인이, 그것도 피곤해 있을 주인이 시중을 든다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만큼 주인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깨어 있는 자세는 현재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지 오늘을 접어두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법구경에 “깨어 있음이야 말로 삶으로 가는 길, 어리석음은 죽음처럼 잠든다. 지혜로운 이는 잠들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의식을 가지고서 깨어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삶이 삶의 길이요, 어리석고 흐릿한 삶은 삶이 아니라 죽음처럼 잠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참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잠들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고 겸손히 하는 깨어 있는 우리가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원장

고통, 죽음과 최후의 대면을 하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구는 동료 의식과 동정과 지지의 요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을 때 계속 희망을 간직하도록 도와달라는 탄원입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67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엄영숙 마리아	남성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티나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레 데레사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8월

◆ 성모승천 대축일 : 15일(목)
아침미사 오전 8시30분, 저녁미사 오후 7시30분

◆ 제2회 백삼위 장학증서 & 장학금 수여식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미사후 성당
- 리셉션 & 뱃지 모임 : 오늘 오후 6시, 장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 장소 : 토요스시

◆ 아이티(Haiti)꽃동네 봉사활동을 위한 선교모금

백삼위한인성당을 포함한 남가주 한인성당 청년들로 구성된 선교팀(BMI : Bridge of Mission International)이 오는 8월 30일(금) 아이티 꽃동네로 봉사활동 및 단기 미션을 떠납니다. 그곳의 이웃들에게 쓰여질 후원금을 모금하오니 교우들의 따뜻한 정성을 기다립니다.

- 일시 : 오늘 주일(11일) 아침, 학생, 낮미사 후
- 장소 : 친교장 입구(농장에서 직접 파운 프레시한 오렌지 와 'Thank You' 카드를 드립니다.)
- 문의 : 고 조너탄 ☎(213)718-1440

◆ 남가주 제36차 여성 꾸르실료 환영울프레이아

- 일시 : 오늘 주일(11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강자 : 최순옥 스텔라 * 봉사자 : 이명순 크리스티나
- 본당꾸르실리스타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2013년 새학기 백삼위 성모회 첫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미사 직후
- 장소 : 친교장
- 성모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신임 성모회장 권순길 체칠리아 ☎(310)365-2183

◆ 안나회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미사 직후 강당

◆ 자동차 축복식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미사직후 사재관 앞마당

◆ LA대교구 다민족·다문화축제 연례 미사 봉헌

- 일시 : 9월28일 오전 10시
- 슬로건 : "Our Faith and Our Youth are Our Strength"
- 장소 : LA대교구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미사 전에 여러가지 행사가 준비되어있으니
오전 9시30분 전까지 도착하기 바랍니다.
- 기념책자 발행 및 배포 : 광고 및 도네이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는 8월26일까지 LA대교구(Office of Ethnic Ministry : 3424 Wilshire Blvd. LA, CA 90010)로 신청하십시오.
- 문의 : Michael Lau ☎(626)487-1292
E-mail : michaelauccc@gmail.com

◆ 대전회 음식판매

- 일시 : 18일(주일) 낮미사후 친교장에서 점심용 시원한 콩국수를 판매합니다.(\$3)
- 각종 밀반찬(\$5) : 멸치볶음, 무말랭이, 장아찌, 오징어채 등.
- 문의 : 서성용 베드로 대전회 회장 ☎(310)686-3587

◆ 제72차 남가주 한인 M.E.부부 첫주말강습 신청받습니다.

- 일시 : 9월13(금)~15일(주일) 2박3일
- 장소 : 샌퍼난도 아씨시 피정센터
- 신청서와 등록비 : 부부당 \$50(8월15일 마감)
- 연락처 : 정동호 하삼마오로&정병옥 율리아
본당대표부부 ☎(310)780-9055

◆ 영신수련 피정에 초대합니다.

- 일정 : 8월18일부터 9개월간
- 대상 : 기도를 배우고 기도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원하는분
이나시오영성에 따른 하느님과의 삶을 원하는분.
* 내용 : 하루 45분기도, 지도신부님과 개별영적지도(매주 또는 격주), 6차례 강의와 전체나눔
- 지도 : 이상훈 요한 신부(LA대교구사제, 영성신학전공, 곤자가예수회대학교 전임교수)
- 첫모임 : 18일 오후 1시30분 백삼위본당
- 문의 : 이베로니카 ☎(213)247-0136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권오상	권진혁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김옥보	김옥찬	김 은	김정엽	김정웅	김종렬	김주량	김정엽	김주량	김종섭	김현숙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김충섭	김현숙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민형기	박씨니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신경훈	오수인
	박정희	방정복	배기엽	변혜경	석순영	송재훈	신경훈	윤화경	윤회동	이귀분	이근모	이복임	이상규	이상석
	오수인	육근주	윤화경	윤회동	이귀분	이근모	이복임	이영희	이은록	이형삼	장영우	전정일	주용순	지경수
	이상규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태옥	이형삼	장영우	최미열	최이원	최재은	황인중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전정일	전정자	정남형	주용순	지경수	최미열	최이원							
	최재은	현석주	황인중	황학수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4,895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강인모	구자운	권오상	김광자	김기정	김선제	김옥보
	김정엽	김주량	김종섭	김현숙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김정엽	김주량	김종섭	김현숙	남명자	모은기	민기남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신경훈	오수인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변혜경	석순영	신경훈	오수인
	윤화경	윤회동	이귀분	이근모	이복임	이상규	이상석	윤화경	윤회동	이귀분	이근모	이복임	이상규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형삼	장영우	전정일	주용순	지경수	이영희	이은록	이형삼	장영우	전정일	주용순	지경수
	최미열	최이원	최재은	황인중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최미열	최이원	최재은	황인중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3,105													
주일미사 헌금 : \$2,387		2차헌금 : \$1,045		감사헌금 : 우영희		주보광고 후원 : \$250								

공지사항

- ◆ 주일학교 전진교리반 학생모집(2013~2014 학년도)
새 학년도 주일학교 시스템 운영이 전면 바뀌면서 전진반을 따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 : 주일학교 10학년~12학년
 - 접수 : 본당 사무실(방학기간동안)
 - 첫모임 : 8월25일 오전 10시30분 회의실 -부모 참석)
 - 문의 : 신동운 벤첸시오 전진교리교사 ☎(310744-5878
-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남가주 소식

- ◆ '청실 홍실'만남의 장
- 일시 : 오늘주일(11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신청 및 문의 : 정시몬 사무국장 (714)530-3111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 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 최대제 신부의 커피교육(제16기)
- 일시 : 8월12일(월) 오후 1시,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수강료 : \$200(10회 실습)
 - 문의 : 성당사무실 ☎(323)731-4433
- ◆ 작은 예수회 LA분원 공동체 후원을 위한 '함께 삶의 기쁨'
- 미사 : 8월17일(셋째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올림픽)
 - 점심나누기 : 낮 12시(구 1일 찻집)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 ◆ 정구평 신부(예수회)의 특강 '식별의 삶'
- 일시 : 8월22일(목) 오후 7시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
 - 주최 : 그리스도인의 생활공동체(미서부지역)
 - 문의 : 정도로테아 ☎(818)321-9505
- ◆ CLC영신수련 침묵피정
- 일시 : 8월23일(금)~25일(주일)
 - 지도 : 정구평 신부(예수회)
 - 장소 : Prince of Abbey(캘리포니아 오션사이드)
 - 문의 : 하세실리아 ☎(323)578-2230

소공동체 8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욱 율리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유현자 안나 483-5476 8/3(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민원희 안나 634-9631 8/10(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8/9(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할리웃보울 8/17(토) 5:30pm 월슨팍 출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홍광선 요셉 999-5808 8/10(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정현 베네딕타 995-6342 8/9(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8/16(금) 오후 7시 강당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8/13(화) 오전 11시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8/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1	정병욱 율리아 404-1607	권오상 바오로 365-2183 8/1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8/18(주일) 오후 1시 피크닉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경희 베네딕타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오영섭 스테파노 518-1736 8/16(금) 오후 7시
	2	김명재 아가다 866-8778	김명재 아가다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8/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	--

☺ 서로 인사 합니다. ☺

2013년 8월15일
성모승천대축일 메시지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2코린 13,1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생활의 여정을 마치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음을 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와 같이 승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궁극적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위협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당신의 모성애로써 돌보아 주시고, 이들을 행복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교회헌장 62항)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이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의 참된 평화입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탄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그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진리, 정의, 사랑, 자유 안에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증오의 벽을 허무시고, 갈라진 두편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다.”(에페 2,14 참조)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할 때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전 60주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끝없는 대립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해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며 필수 조건입니

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이제는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넘어서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중단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류, 만남 등 가장 인도적인 조치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채 가슴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북한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남북한이 열린 마음과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도적인 도움과 평화적인 교류를 늘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남북한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인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화해와 일치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겨레는 분열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가 인간의 존엄과 진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온 겨레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전구 해주소서. 아멘.”

◆염수정 대주교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아름다운 그대

사람의 의지는 태풍을 대비해 쌓은 방죽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허물어진 방죽 그 자리에 다시 방죽을 쌓는 것, 그것이 의지입니다. 좌절과 맞서고 절망을 뛰어 넘는 것. 해서 우린 의지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겠지요. ◆이영 아녜스 / 수필가